

2026 1

경기전망(BSI)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시점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시점 : 2025. 12월 기준
- 분석대상 : 132개 응답 업체

2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전망에 대한 응답 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 업체 수} - \text{부정적인 응답 업체 수})}{\text{전체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 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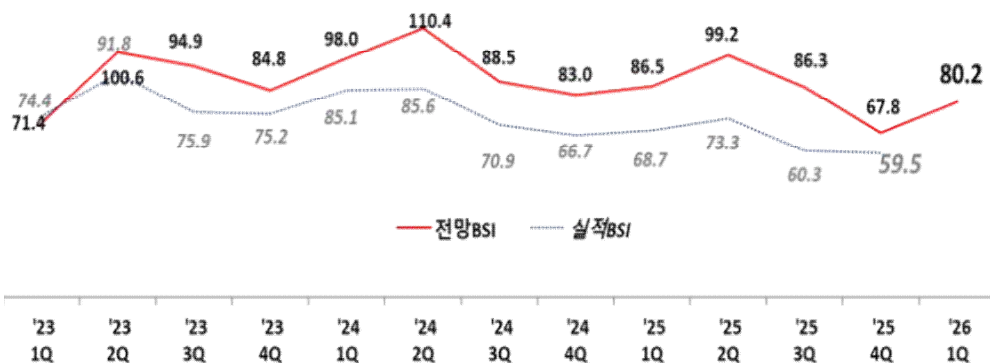
II

2026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 2026년 1분기 전망 BSI '80.2', 4분기 실적 BSI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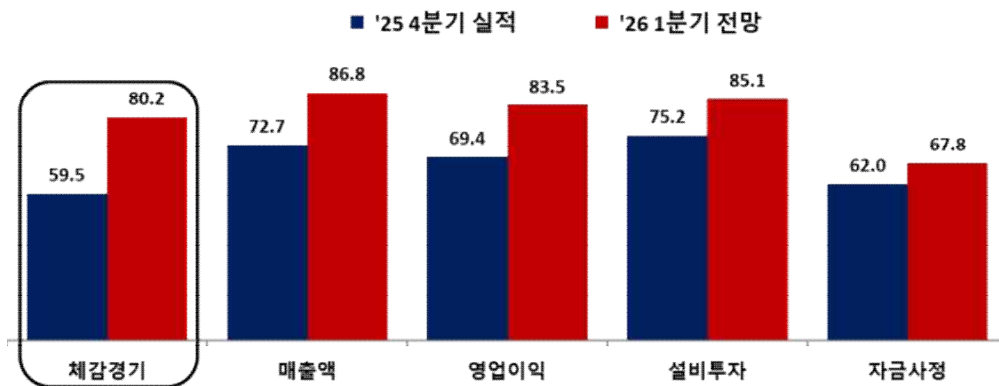
- 원부자재 가격 변동,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실적BSI가 기준치를 밑돌았고, 2026년 1분기 전망치 또한 여전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편 관세 도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여전히 자동차·철강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채산성을 직접 위협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고환율로 인한 수입 원가 상승과 내수 소비 부진이 맞물리며 전기·전자(52.2)와 자동차·부품(73.9) 업종의 경기 전망이 악화되었음.
- 다만 대·중견기업(111.8)과 수출기업(117.2)은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반면, 중소기업(67.8)과 내수기업(68.5)은 기준치를 밑돌며 규모별·매출형태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 이러한 격차는 글로벌 경기와 내수 회복 속도의 차이에 따른 구조적 영향으로 풀이됨.
- 항목별 전망 BSI : 매출액(86.8), 설비투자(85.1), 영업이익(83.5), 자금사정(67.8),
- 업종별 전망 BSI : 기계·장비(96.4), 철강금속(95.0) 자동차·부품(73.9), 기타운송장비(71.4), 전기·전자(52.2), 기타(85.0)
- 특성별 전망 BSI : 대·중견기업(111.8), 중소기업(67.8)
수출기업(117.2), 내수기업(68.5)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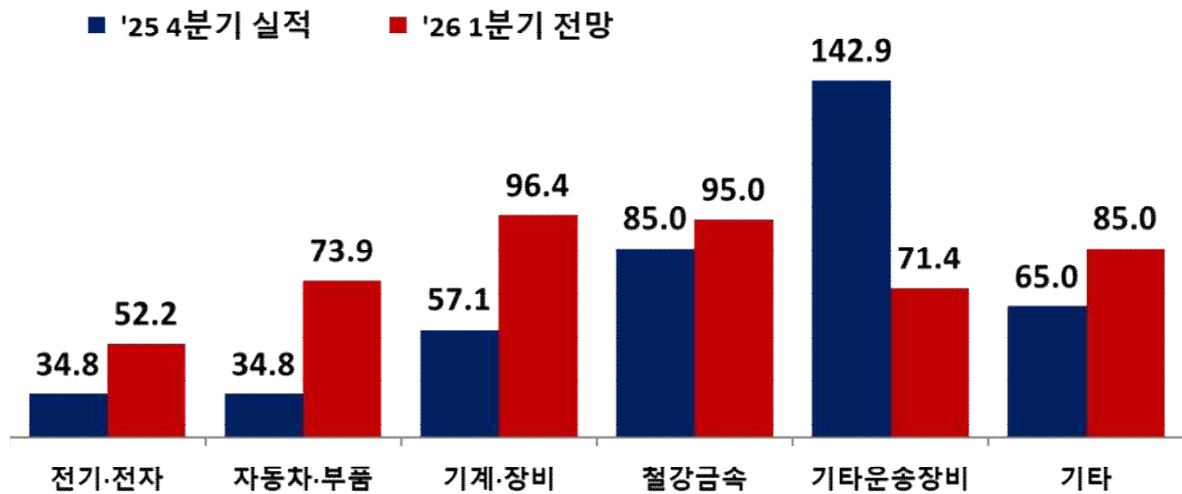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 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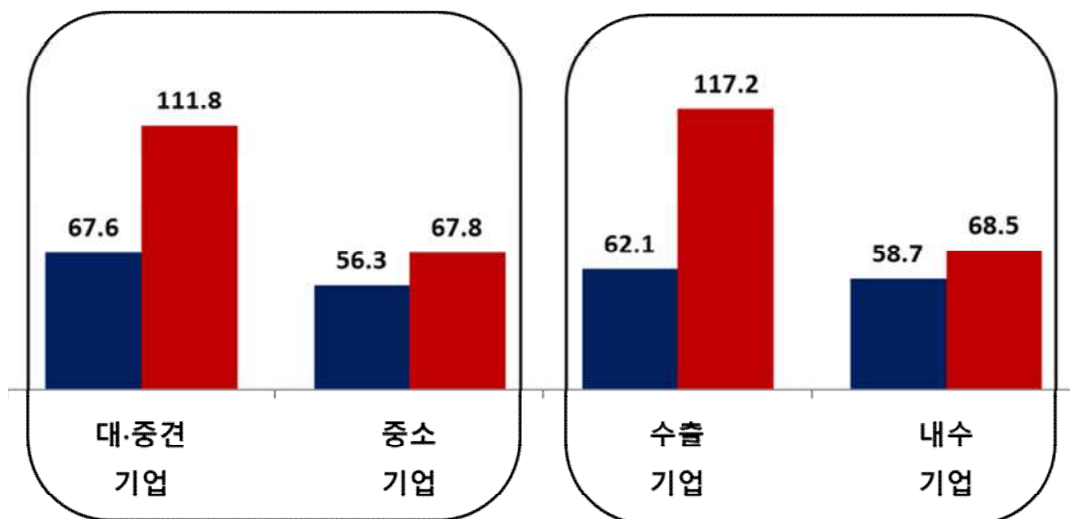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업종별 실적 및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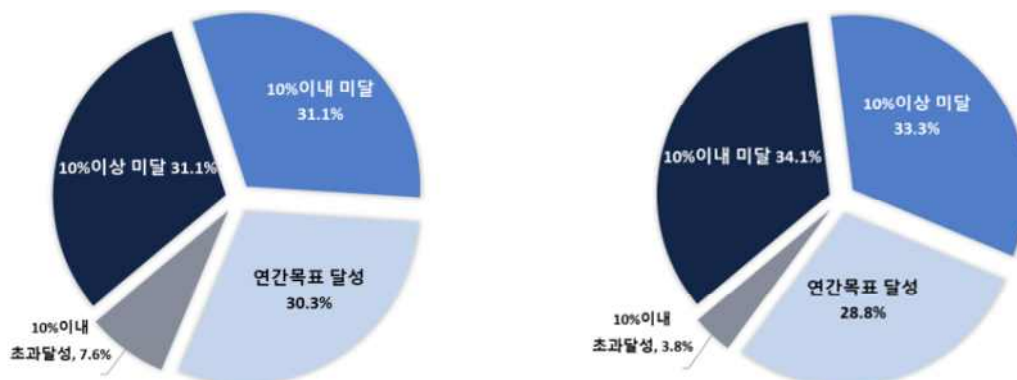


■ '25 4분기 실적 ■ '26 1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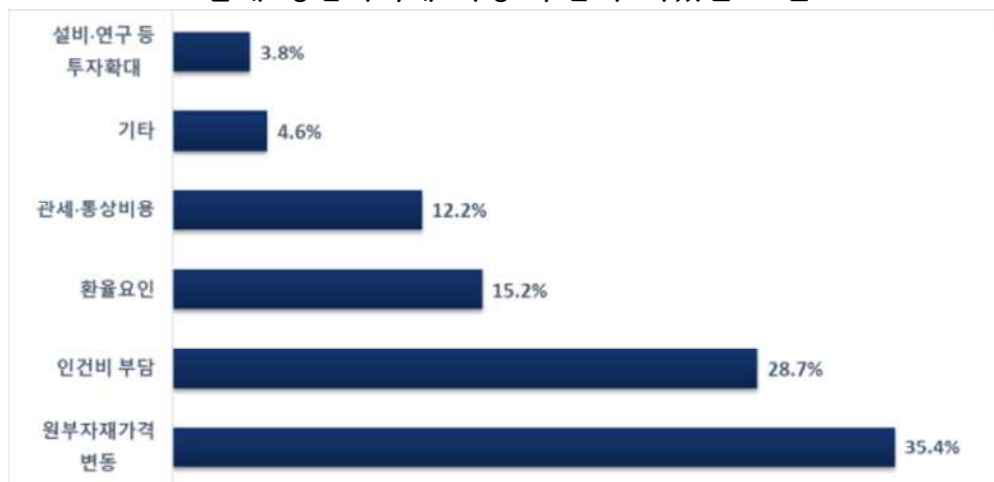


- 연초 목표 대비 매출실적에 대해 응답업체의 62.2%가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됨.
 - 구체적으로 '10% 이내 미달'(31.1%), '10%이상 미달'(31.1%), '연간목표 달성'(30.3%), '10%이내 초과달성'(7.6%) 순으로 응답하였고, '10%이상 초과달성'은 모두 응답자 없음.
- 연초 목표 대비 영업실적에 대해 응답업체의 67.4%가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됨.
 - 구체적으로 10% 이내 미달'(34.1%), '10%이상 미달'(33.3%), '연간목표 달성'(28.8%), '10%이내 초과달성'(3.8%) 순으로 응답하였고, '10%이상 초과달성'은 모두 응답자 없음.
- 이어서 올해 영업이익 실적에 가장 부담이 되었던 요인에 '원부자재 가격 변동'(35.4%)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음.
 - 이어서 '인건비 부담'(28.7%), '환율 요인'(15.2%), '관세·통상비용'(12.2%), 설비연구 등 투자확대(3.8%), 기타(4.6%) 등의 순

연초 목표 대비 매출실적(좌) 및 영업이익 실적(우)



올해 영업이익에 가장 부담이 되었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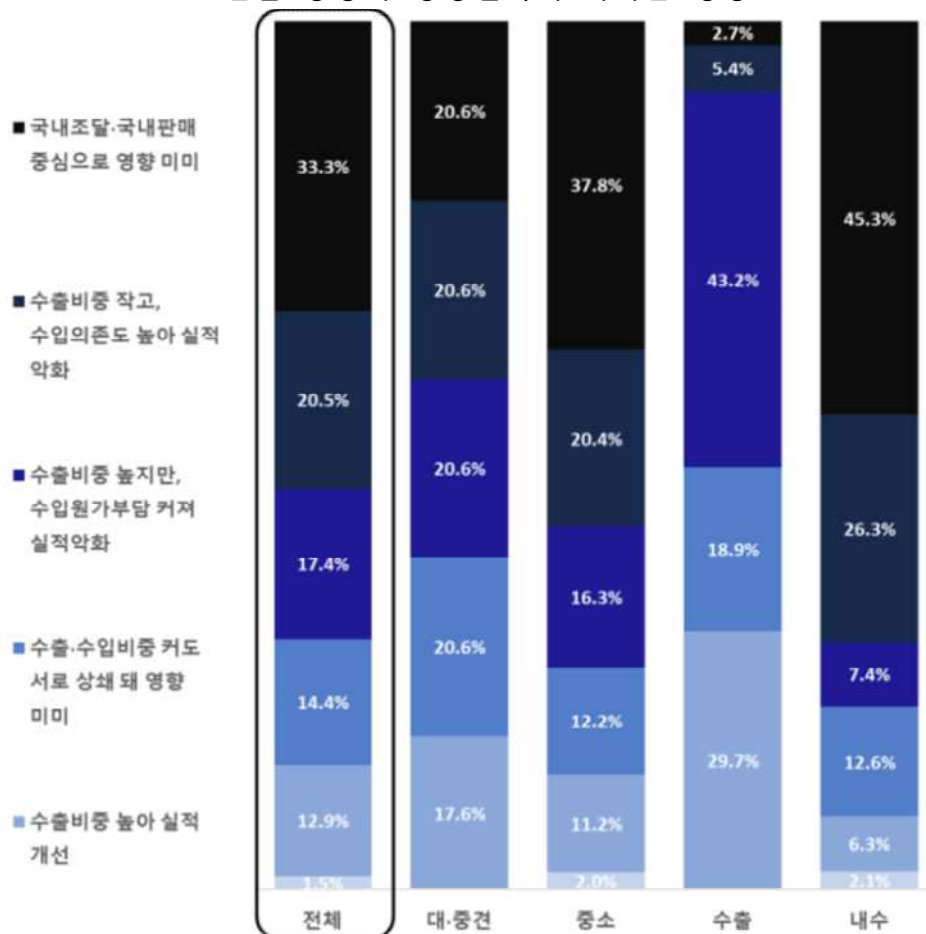
● 현재와 같은 고환율 상황이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가까운 것에 대해 질문에 47.7%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38.0%는 실적악화로 응답

- 구체적으로 영향이 미미하다에 대한 답변은 ‘국내조달·국내판매 중심으로 영향 미미’(33.8%), ‘수출·수입 비중 커도 서로 상쇄 돼 영향 미미’(14.4%)로 나타남..
- 반면 악화 및 개선에 대한 답변은 ‘수출비중 작고, 수입의존도 높아 실적 악화’(20.6%), ‘수출비중 높지만, 수입원가부담 커져 실적악화’(17.4%), ‘수출비중 높아 실적 개선’(12.9%)등으로 나타남.

● 특히 수출기업은 실적악화에 대한 비중이 48.6%로 가장 높았음.

- 구체적으로 악화에 대해 ‘수출비중 높지만 수입원가부담 커져 실적악화’ 43.2%, ‘수출비중 작고 수입의존도 높아 실적 악화’가 5.4%가 응답하였음.
- 반면, 나머지는 ‘수출비중 높아 실적 개선’(29.7%), ‘수출·수입비중 커도 서로 상쇄 돼 영향 미미’(18.9%) 등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이 고환율 상황에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고환율 상황이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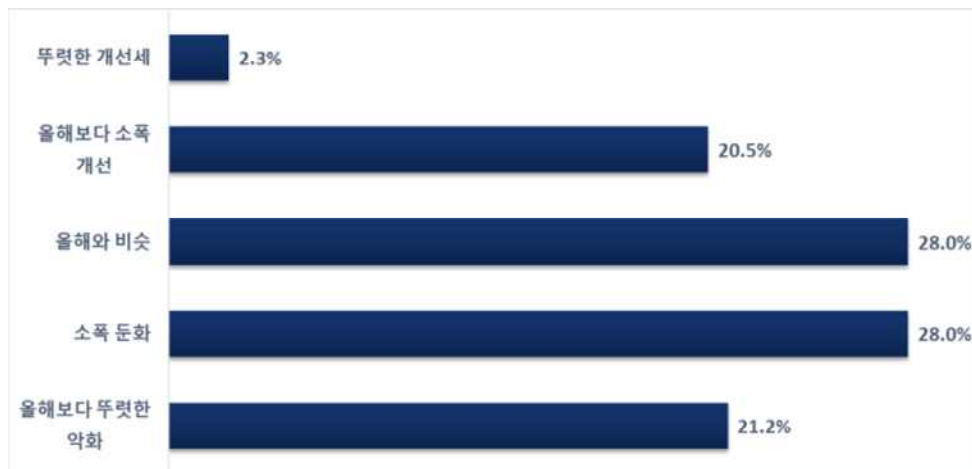


Ⅲ

기업이 바라본 경영·경제전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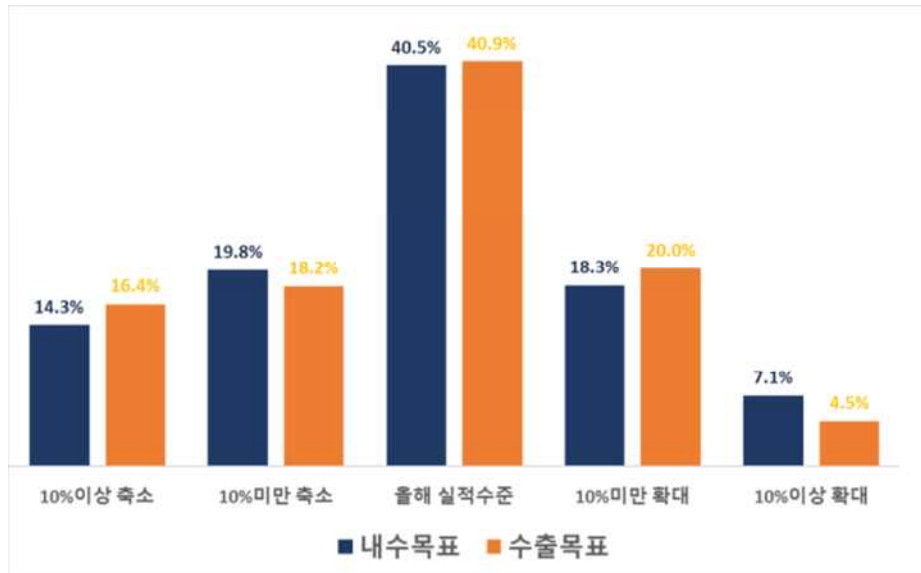
-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흐름의 변화에 대한 전망에 ‘올해와 비슷’(28.0%)과 ‘소폭 둔화’(28.0%)를 가장 많이 꼽아
- 이어서 ‘올해보다 뚜렷한 악화’(21.2%), ‘올해보다 소폭 개선’(20.5%), ‘뚜렷한 개선세’(2.3%) 순으로 응답하였음.

올해 계획했던 연간 매출 목표 대비 실적 전망(위)및 매출증대에 가장 큰 애로요인(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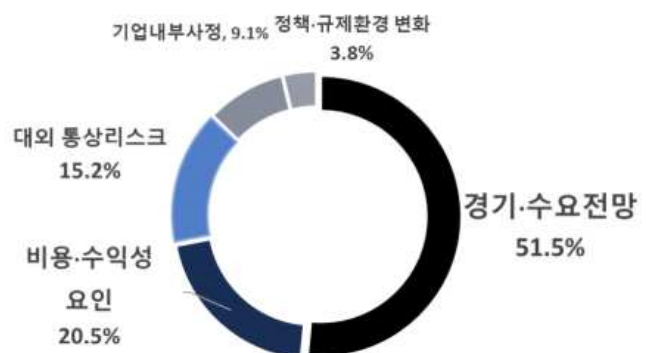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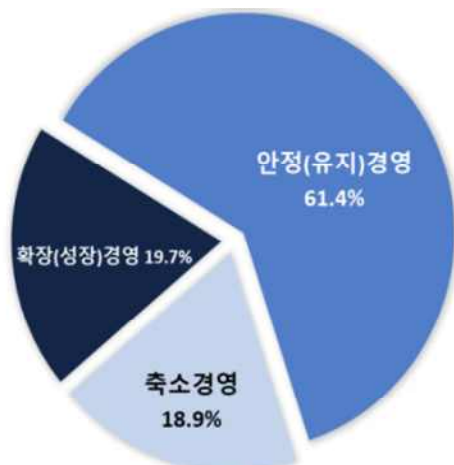
- 내년도 내수 및 수출실적 목표치를 올해 실적대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내수목표, 수출목표 올해 실적 수준(40.5%, 40.9%)을 가장 많이 꼽아..
- 이어서 내수목표에서 축소는 34.1% [‘10%미만 축소’(19.8%), ‘10%이상 축소’(14.3%)] 확대는 25.4%[‘10%미만 확대’(18.3%), , ‘10%이상 확대’(7.1%)]로 나타남.
- 수출목표는 축소가 34.6% [‘10%미만 축소’(18.2%), ‘10%이상 축소’(16.4%), 확대가 24.5%[‘10%미만 확대’(20.0%), ‘10%이상 확대’(4.5%)]로 나타남

올해 실적 대비 내년도 내수 및 수출실적 목표치



- 내년 경영계획 핵심 기조와 대해 61.4%가 ‘안정(유지)경영’을 꼽았고, 경영 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변수는 ‘경기·수요 전망’(51.5%)
- 핵심기조에 대해 다음으로 ‘확장(성장)경영’(19.7%), ‘축소경영’(18.9%)로 응답
- 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핵심변수는 ‘비용·수익성 요인’(20.5%), ‘대외 통상리스크’(15.2%), ‘기업내부사정’(9.1%), ‘정책·규제환경 변화’(3.8%)순

내년 경영계획 핵심 기조(좌) 및 경영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친 핵심변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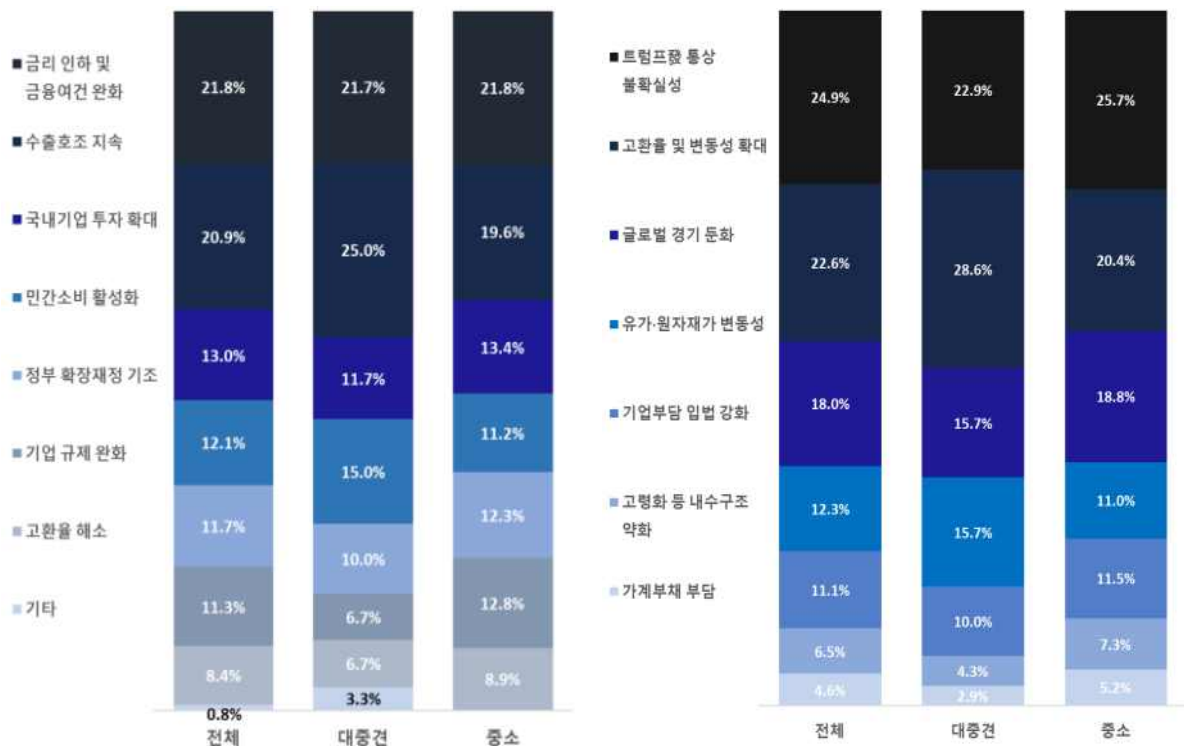
●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가장 큰 긍정 요인은 ‘금리 인하 및 금융여건 완화’(21.8%)

- 이어서 긍정요인은 ‘수출호조 지속’(20.9%), ‘국내기업 투자 확대’(13.0%), ‘민간소비 활성화’(12.1%), ‘정부 확장재정 기조’(11.7%), ‘기업 규제 완화’(11.3%) ‘고환율 해소’(8.4%) 순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중견기업의 경우 ‘수출호조 지속’(25.0%)을 가장 큰 긍정 요인으로 꼽았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금리 인하 및 금융여건 완화’(21.8%)

●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가장 큰 제약하는 하방 요인은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24.9%)

- 다음으로 하방요인은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22.6%), ‘글로벌 경기 둔화’(18.0%), ‘유가·원자재가 변동성’(12.3%), ‘기업부담 입법 강화’(11.1%), ‘고령화 등 내수구조 악화’(6.5%), ‘가계부채 부담’(4.6%) 순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중견기업의 경우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28.6%)를, 중소기업의 경우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25.7%)를 가장 큰 하방 요인으로 꼽았음.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긍정요인(좌) 및 제약하는 하방요인(우)



● 내년 경제활성화 및 기업실적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에 대해 ‘관세 등 통상 대응강화’(28.8%)를 가장 많이 꼽아..

- 이어서 ‘국내투자 촉진 정책’(21.9%), ‘환율 안정화 정책’(18.6%), ‘소비활성화 정책’(13.0%), ‘위기산업 지원 정책’(11.9%), ‘AI·첨단산업 육성 지원책’(7.8%),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2.2%)의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대·중견, 중소기업 모두 ‘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각 25.4%, 24.3%)으로 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컸음.
- 매출형태별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또한 ‘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각 25.7%, 24.1%)으로 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컸음, 이어서 수출기업은 ‘국내투자 촉진 정책’(21.4%)과 ‘환율 안정화 정책’(21.4%)을 , 내수기업은 ‘국내투자 촉진 정책’(22.1%)을 중요하게 응답하였음.

경제활성화 및 기업실적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

